

긴·급·진·단

더 이상 '우리'는 없다



공병호박사

한번 조국은 영원한 조국인가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막연히 감정적인 애착을 갖고 소속감을 느낄 때가 많다. 고향, 모교, 조국 모두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이 책의 주요 독자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고향이나 모교, 조국에 좀더 강한 애착을 가진 세대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영속적인 관계로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이 땅에 태어났기에 한번 조국은 영원한 조국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속적이라고 여겨졌던 관계들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거나 외국 문물을 자주 접촉하는 계층 가운데 특히 그런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는 사회를 여러 면에서 비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적 지형의 변모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본다.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도 변화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여유 있는 계층 사이에 이 같은 현상은 소리 없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과거처럼 큰 관심을 갖지 않을 텐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삶을 꾸려가는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이민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준 이민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떨어지면 공동체를 위한 기부나 자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익숙하기 때문에 조국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사회란 선택 가능한 장소 중 하나일 뿐, 납세나 군복무 같은 최소한의 법률적 의무를 넘어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전망이다.

보통 사람들은 여유 있는 그들에게 공동체의 이익과 이상을 위해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가들이 이 땅을 떠나가거나 과거 열심히 하던 사업을 접어버리는 현상들을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일이다.

과거에는 체면 등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여력이 허락하는 한 자신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귀찮다. 그냥 내 재산을 나뉘어 위해, 자식을 위해 사용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가 내다본 미래의 모습이 이미 한국의 경제적인 상류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나** - 사람들은 과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한다.
- **모든것** - 여러 가지 대립되는 욕구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한꺼번에 또는 차례차례 충족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어디에서나** - 이제 사람들은 운반 가능한 것들만 소유하면서 여행하고 즐기고 국경 없이 살고 싶어한다.
- **당장** - 기다림·고생·절약·물려주기 따위는 이제 혐오스러운 말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만큼은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듯 하다. 한국인들은 더욱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교육 탈출(exodus)'을 시도할 것이다.

반미 칼럼으로 필력을 자랑하다가 요직에 앉게 된 사람들이 자식은 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물론 순수한 개인적 선택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외국에 맡긴 부모들이라면,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녀를 유학시키는 일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유학 가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히 교육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외로 해외로

나는 한국의 중·상류층에서 일어나는 도 한 가지 현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내수시장이 뽕뽕 얼어붙은 속에서도 외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계

다가 해외에 나가 쓰는 돈의 액수도 국내의 불황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주위의 눈치를 보았을 법도 한데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앞으로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 더 이상 이런저런 일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려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성향은 그들의 사회활동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생산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욕구는 줄어드는 반면 골치 썩이지 않고 돈을 굴리는 일에는 더욱 몰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란 공동체에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재해석하는 일들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보다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동질성을 갖기 시작했으며 계층 간 심리적, 정서적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시대에 같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일들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심화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한편 30대 전후의 프로페셔널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이나 감정을 털어버리기에 훨씬 손쉬운 세대다. 전문적인 기술과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삶

의 질과 자녀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다. 유능하고 젊은 프로페셔널들은 굳이 생물학적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테고, 이미 자리를 잡은 세대들과는 달리 살아갈 날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매력적인 국가를 향한 두뇌 유출은 한국의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20대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될 듯하다. 대학생이나 직장에 갓 들어온 젊은이들도 유학을 준비하듯 이민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조기 유학 세대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프로페셔널리즘과 능숙한 언어를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는 코리안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들은 다중언어와 다중문화 능력을 갖추고 모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도 '우리'는 또다른 '우리'와 '그들'로 분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명 '우리'라는 의미가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다. 생물학적 조국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규모 있는 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변화를 그냥 넘겨버릴 수만은 없다.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한 사회의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